

호랑이가 떴다... 포항서 인기 '짱'



김상현·나지완·안치홍·이현곤·박기남 '아이돌 스타'로
 피트니스센터·연습장 팬들 북적...즉석 팬사인회 열기도

KIA 타이거즈 선수들의 캠프가 꾸러진 포항에 찾아온 야구 열풍이 뜨겁다.
 황병일 수석코치가 인솔하는 KIA의 자율캠프단이 지난 15일 포항에 집을 풀었다. 포항캠프의 멤버는 올 시즌 우승의 주역들인 김상현·나지완·안치홍·이현곤·박기남 등 5명.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12월의 휴식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호랑이들이 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포항에는 야구바람이 불고 있다.
 훈련 일정 등은 지난해와 변함없다. 오전 포철공고 야구부 연습장에서 기술훈련을 한 뒤 오후 황병일 코치의 지인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웨이트 훈련을 한다. 산행도 빠질 수 없는 이들의 훈련

중 하나다. 18일에는 강주위도 잇은 체 경주 남산을 다녀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접은 훨씬 더 융숭해졌다. 선수들이 몸을 만드는 피트니스 건물 앞에는 KIA 선수단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선수들을 알아보는 이들도 부쩍 늘어 가는 곳마다 사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일요일이었던 20일에는 즉석 사인회까지 열렸다. 선수들이 기술훈련을 하는 포철공고에 포항중 야구부 선수들과 포항 남부 리틀 야구단 선수들이 찾아오면서 휴일 학교 운동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어린 선수들과 포항의 야구팬들까지 발길을 하면서 실내연습장은 발디딤 곳이 없을 지경이었다. 어린 선수들이 핸드폰과 카메라를 들

고 대선배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쫓으면서 선수들은 '아이돌 스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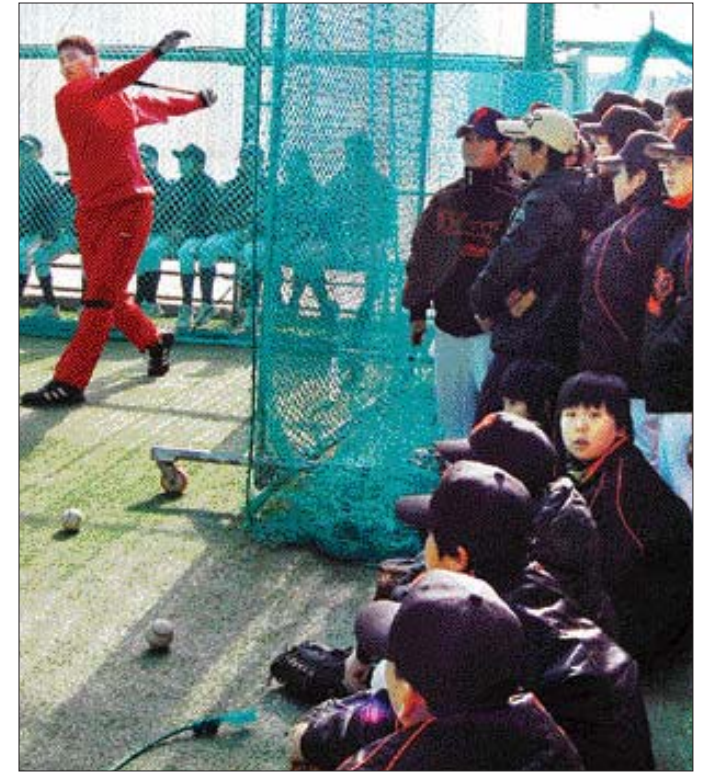
KIA 선수들은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후배들을 위해 기념촬영과 사인을 해주느라 연습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다.

선수들의 인기상승과 덩달아 황병일 코치도 귀하신 몸이 됐다. 지난해 고향인 포항에서 제자들과 함께 질치부심 2009년을 준비했던 황병일 코치는 우승팀 수석코치로 금의환향하면서 지역의 유명인사가 됐다.

포항의 명예대사가 된 황 코치는 "선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지인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올 시즌 우승을 하면서 KIA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많아진 것 같다"며 달라진 KIA의 위상을 전했다.

포항에 야구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KIA 선수단은 오는 30일까지 힘겨운 훈련 일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포항=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포항에서 자율훈련중인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포항중학교 야구부와 리틀 야구단 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일 포철공고 야구부 실내연습장에서 배팅훈련을 하고 있다.

살과의 전쟁

나지완·안치홍 체중감량 특명

두 MVP의 '살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KIA 타이거즈의 신예 거포 나지완과 안치홍이 포항캠프에서 체중감량에 공을 들이면서 '몸짱'으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속속 톱메이트였던 두 선수는 시즌 중반 급격히 체중이 불면서 잠시 슬럼프를 겪기도 했다. 안치홍은 체중이 불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타격이 신통치 못했다. 나지완은 시즌 중반 무릎부상을 당한데다 체중이 100kg를 훌쩍 넘으면서 시즌내내 무릎이 좋지 못했다.

황병일 수석코치는 포항캠프가 시작되면서 두 선수에게 '체중감량'이라는 엄명을 내렸다.

두 선수 모두 체중을 줄이고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 웨이트 훈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먹는 것도 조심스럽다.

특히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인 나지완은 식이요법까지 병행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19일 포항에서 횃집을 운영하는 투수 김희걸의 아버지가 선수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하면서 포항캠프에는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지만 나지완은 홀로 속소를 지켰다. 체중감량을 위해 식이요법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음식 앞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회식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안치홍에게도 이날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은 '그림의 떡'이었다.

나지완은 오전 훈련시간에 다른 선수들과 떨어져 운동장을 돈다.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야 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홀로 경기장을 돌면서 체중감량을 위해 이를 악물고 있다.

'약속의 땅'이 되어준 포항에서 두 MVP가 2010 시즌을 위한 고독한 도전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빙원을 날자구나

20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FIS 스노우보드크로스 월드컵 2010에서 한 그룹의 선수들이 열연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연아, 밴쿠버올림픽 성화봉송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한국 선수 첫 올림픽 피겨 금메달에 도전할 캐나다에서 성화 봉송에 참가했다.

김연아는 20일 오전(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헤밀턴에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서 약 300m를 달렸다. 김연아는 밴쿠버 올림픽 무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추천으로 성화봉송 주자로 선발됐다.

김연아가 동계올림픽 성화 주자로 나선 것은 2006년 토리노 대회에 이어 2회 연속이다.

4년 전 김연아는 2005-2006 국제빙상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한 피겨 유망주였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106일 동안 캐나다 전역을 돌며 진행될 성화 봉송 릴레이는 내년 2월12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이 개막할 때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

유소연 KPGA개막전 우승

연장접전 끝 서희경 제쳐 '무서운 10대' 유소연(19·하이마트)이 상금왕 서희경(23·하이마트)을 연장 접전 끝에 제치고 2010시즌 개막전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유소연은 19일 중국 서먼의 오리엔트 골프장(파72·6천508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10시즌 개막전 오리엔트 차이나 레이디스 오픈 마지막 3라운드에서 5언더파 211타로 동태를 이룬 뒤 연장 3번째 홀에서 역전 우승했다. 유소연은 2009시즌 마지막 대회까지 서희경과 타이틀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지만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한 서희경에게 상금왕, 다승왕 등 주요 타이틀을 다 내줬다.

유소연은 "올해 5승이 목표였는데 4승에 머물러 아쉬웠다"며 "비록 이번 대회가 2010년 개막전이라는 하지만 2009년에 5번 우승을 하게 돼 가벼운 마음으로 내년 시즌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기간: 2009.12.20 ~ 2010.02.28

100% 상품대우

(주)우동권광여행사

전화: 062-383-9042

제주여행 이지 할인 받고 가자!!

<p>1. 제주여행 패키지 상품</p> <p>2. 제주여행 상품</p>	<p>3. 제주여행 상품</p> <p>4. 제주여행 상품</p>	<p>5. 제주여행 상품</p> <p>6. 제주여행 상품</p>
---	-------------------------------------	-------------------------------------

www.jesju.com (문의: 062-383-9042)